

국힘 전대 '천하람 효과'... 광주·전남서 흥행 예고



7일 서울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당 지도부와 당 대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경태 후보, 윤상현 후보, 황교안 후보,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김기현 후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유홍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출마 비운계 대표주자로 급부상 '돌풍' 불모지 시·도서 지지 얻을지 관심 지역서 보수당 대표 이정현 유일

더불어민주당 '뺑뺑'인 광주·전남에서 '남의 잔치'나 다름없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 대표 후보로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의 양강 구도 속에 순천에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루키'로 등장하면서 호남 흥행을 넘보고 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다음달 8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전당대회에선 당 대표와 일반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당 대표 예비 경선은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가나다 순) 후보 등 6파전으로 치러진다.

천 위원장은 대구 출생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모지'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에 도전했다. 4058표(3.02%)를 받고 낙선했지만, 이후 순천에 가족과 거주하며 이름을 알려 나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의 성향이 확연

히 갈리는데, 천 위원장이 비운계 독자 후보여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비운계 성향의 당원 표심을 공략한다면 천 위원장의 득표율도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천 위원장의 출사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호남 흥행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다.

천 위원장 출마에 앞서 최고위원 후보에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에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비운계 대표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비운계 당원의 '몰표'를 노린 출마 전략은 당선되지 않더라도 비운계 측의 영향력을 보여주기에 위함으로 풀이된다.

비운계의 힘을 받은 천 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서 얼마만큼의 표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10일 예비 경선(컷오프)에서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정하는 만큼 천 위원장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 중 보수정당 대표에 오른 인물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유일하다.

이 전 대표는 천 위원장과 같은 '불모지' 순천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 최고위원에 오르는 등 돌풍을 이끈 인물이

다. 그는 당 대표까지 맡으며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지역을 위해 일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5년여 만에 복귀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기준치 15%를 넘는 좋은 성적(18.81%)을 거뒀다. 지역구 곡성에선 40.97%, 순천에선 31.98%를 기록하면서 재선 국회의원으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이 전 대표를 이어 천 위원장이 광주·전남 목소리를 대표해줄 주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천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느꼈다"며 "국민의힘에서 구태 정치, 줄서기 정치를 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 광주·전남에서 인정받는 '멸절'한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게 목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순천은 나의 정치적 고향이다"며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순천 경전선 도심 구간 통과 문제,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광주·전남 인공지능 협업, 전남대학교 스마트병원 건립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먹거리와 미래를 챙기는 당 대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김혜나 기자

알립니다

멀티미디어 전남일보 '주역'을 찾습니다



제35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공채
모집부문 수습 및 경력기자 0명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수습기자: 필기시험(논술)
3차 면접
지원자격 학력·전공·나이 및 성별에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3년 2월 17일(금) 15시까지

*접수처 E-mail : recruit@jnilbo.com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필기시험 : 2023년 2월 21일(화) 10:00 *예정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지하 1층)

■ 면접 : 대상자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지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사 소정 양식, 전남일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경력기자는 기명기사 3건 이상

※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일보 경영본부(062-510-0421)로 연락바랍니다.

기상악화로 정보호 인양작업 난항

전북 나흘째 실종자 수색 확대

신안 임자도 해역에서 '정보호' 전복사고 발생한지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인양이 늦어지면서 실종자 수색이 더뎠고 있다.

7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신안 대머사도 주변 해상에서 정보호를 매단 크레인선이 원활한 인양 작업을 위해 소허사도 인근 해상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다만 이날 오후 5시 현재 기상이 다소 악화되면서 해가 진 이후에는 인양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보인다. 특히 전남보다 파고가 높고 물살이 3노트(시속 5.5km)에 다다른 등 거센 조류가 흐르고 있어 바지선 등 선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양 준비와 동시에 해경은 선체 내·외

부를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남은 4명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날 해상상태, 수색과정에서 확인된 정보호 유류품 발견위치 및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사고해역 주변 동·서 24해리(44.4km), 남·북 30해리(55.5km) 해역 중심으로 집중수색을 펼쳤다. 이날 수색에는 민간어선 30척, 해경함정 24척, 해군함정 5척, 관공선 6척 등 합선 총 65척과 해경 항공기 3대, 군 항공기 4대, 소방 항공기 1대 등 항공기 총 8대가 동원됐다.

앞서 전날인 6일 해경은 9명의 실종자 중 5명의 선원을 수습했다. 선체에서 기관장 김모(64)씨와 선원 주모(56)씨, 여모(54)씨, 이모(58)와 또 다른 이모(46)씨 등 5명이 승진체로 발견됐다.

▶관련기사 4면 김혜나 기자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명작수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